



우석대, 일자리 기획행정 전문가 양성과정 개강

우석대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는 13일 전주시 금안동 우석빌딩 세미나실에서 제6기 전북 지역 일자리 기획행정 전문가 양성과정 개강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강식에는 이숙미 학생취업처장과 교육생,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 과정은 우석대학교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과 전라북도,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최했다.

오는 7월 28일까지 총 140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양성과정은 직무기초 및 취업대비 심화 실무 등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이후 우석대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전북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에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은성 기자



효자2동 어울림봉사회, 저소득 가구 밀반찬 나눔

전주시 효자2동의 이웃에게 도움이 손길 전해졌다.

전주시 효자2동(동장 김해숙) 장애인을 돕는 어울림봉사회(회장 노창욱)는 13일 관내 저소득 가구에 밀반찬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어울림봉사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가구에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곱절이 낙지젓갈 무장어찌, 기념품 등 밀반찬 세트를 전달했다.

노창욱 어울림봉사회장은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밀반찬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남원소방서, 골프장 생명지킴이 협력체계 구축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골프장의 위급상황 대응을 위해 13일 남원시골프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심정지 등의 위급상황 발생시 골프장 내 응급처치가 필요하나 최초 119신고 후 구급대원 도착 시간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관할 소방서와 자체 응급처치인 '생명지킴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구급대 도착 전까지 최대한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협약의 주 내용은 △기초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 △화재예방홍보 및 각종 소방안전 캠페인 참여 △기타 지역안전 및 상호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보건소,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실시

제7회 구강보건의 날(6. 9)을 맞아 김제시보건소소장 송윤주는 지난 10일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 확산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은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라는 슬로건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강질환의 사전 예방에 기본이 되는 바른양치 교육과 더불어 점심식사 후 칫솔질 습관 생활화를 위한 집중 홍보로 진행되었다.

구강질환은 만성질환으로 스스로의 건강생활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김제=관동태 기자

춘계 연합학술대회 개최

에원예술대 문화예술HRD연구소 · 호남미술사학회

지난 11일(토), 에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HRD연구소와 (학)호남미술사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주)안드레의 바다 출판사, 전북도민대동포협이 후원하는 2022년 문화예술HRD연구소 & 호남미술사학회 춘계 연합학술대회가 에원예술대학교 대회의실에서 ON-LINE과 OFF-LINE 병행 개최됐다.

문화예술HRD연구소는 예술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과 연계한 문화산업 및 인간중심 & 연구개발이라는 HRD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대문화 속 예술의 가치구현과 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공생사회 미술관 사례, 디지털리터러시, 의료서비스디자인 혁신 사례, 한국이교육 현장에서의 고전문학 작품 활용, 예술의 환유 등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향후 후속적인 파급효과 및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모델화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에원예술대 문화예술HRD연구소장이자 (학)호남미술사학회 회장인 김도영 교수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도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하드웨어적 SOC의 대폭적인 확장을 추진하면서



그 위에 소프트웨어 문화융성을 덧씌우는 한편 메타버스의 비즈니스모델을 함께 융복합하여 추진한다는 문화산업 개발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를 삼고 있다"면서 "대면하는 문화가 사라지는 가운데, 보다 다양해지고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과 학술적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기에 앞으로 소외된 문화예술교육 영역의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하는데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남원시, 또래상담 연합회 발대식 개최

남원시는 시가 위탁한 사단법인 CYA가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난 9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또래상담자 및 상담교사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또래상담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래상담은 상담에 대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 또래상담자가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남원시 초·중·고등학교 내에 100여명의 또래상담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연합회는 용성중, 하늘중, 남원중 3개교 20명의 또래상담자들이 연합회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정일신 센터장의 특강을 통해 또래상담연합회원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또래상담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구본진(용성중3년)학생의 우수활동사례를 듣고 서로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또래상담연합회는 그동안 주로 각 학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또래상담' 활동을 또래상담자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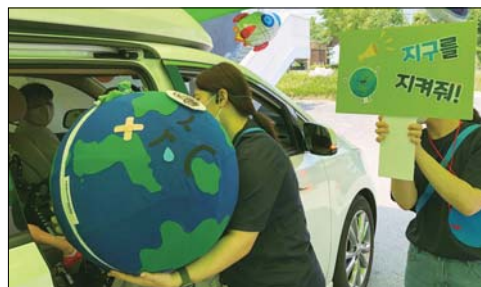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드라이브스루 건강 캠프 성료

전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11일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뽀뽀! 마음 뽀뽀! 드라이브스루 건강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 진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캠프를 진행했다. '지구야 사랑해!'를 주제로 어린이를 동반한 44가정이 차량에 탑승해 단계별 교육을 받았다.

1단계 부스에서는 학부모와 어린이에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2단계 부스에서는 어린이에게 역할극을 통하여 가정 내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총 게임을 실시했다. 특히 단계별 교육 진행 후에는 주제에 맞는 환경지킴이 배지, 에코백, 어린이 물병 가방 등 기념품도 배부했다.

캠프에 참여한 학부모는 "환경 문제가 심각한 요즘 코로나



19로 나들이가 쉽지 않는데 차를 타고 나와 양질의 교육을 받고 다시 한번 환경 문제를 생각할 수 있었고, 기념품까지 받는 등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중화산2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꾸러미 전달

전주시 중화산2동(동장 소미혜)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지연)는 13일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랑의 꾸러미' 전달 행사는 '함께해서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했다.

새마을부녀회 김지연 회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은 나 자신과 회원들 모두에게 행복과 보람을 주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중화산2동을 만들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화산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독거노인 청소봉사, 김장나눔, 떡국봉사 등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왔으며, 관내 환경정화 활동도 꾸준히 펼쳐오고 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동서학동 지사협, '사랑의김치 나눔 행사' 진행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동장 서성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동원)는 13일 백학교회에서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치와 파스 등을 전달하는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과 소외계층이 함께 마을공동체의 정을 느끼고 소외계층들의 근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회원들은 직접 구입한 재료를 손질하고 김치를 담가 관내 소외된 이웃 100여 가구에 전달했다.

송동원 위원장은 "이번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관내 주민들이 맛있게 드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서성관 동서학동장은 "이번 행사는 관내의 소외된 이웃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근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행사였다"며 "이웃 간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어 보다 정겹고 따뜻한 동서학동 마을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농협 · 여성단체협의회, 영농철 일손돕기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3일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윤정미)와 공동으로 완주군 구이면 매실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인 재향군인회여성회(회장 박찬숙) 회원 15여 명이 참여해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서 매실수확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양 기관은 지난해 5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향군인회여성회 박찬숙 회장은 "일손부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손돕기에 참여해주신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북농협은 유관기관과 함께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농촌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전주교대-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업무협약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는 13일 대학 본부에서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북지부(지부장 김일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해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봉사 정신을 함양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주요 협약내용은 JUNE 동행 사업의 공동 운영을 위한 멘토링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 발전적이고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일에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일환 지부장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우리 기관에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면서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할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박병준 총장은 "서로의 동반자로서 협약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두 기관의 교류를 활성화해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 내장상동 지사보협, 청소년 장학금 전달

내장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상민 이상민)는 13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학생 20명을 선발해 1인당 2만원의 장학금(18명)과 책상(2명)을 전달했다.

올해로 5년째 추진하고 있는 'Cheer up! 네 꿈을 응원해' 장학금 지원사업은 내장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축구 선수가 되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꿈을 갖고 있다"며 "김치와 훈편비가 많이 부담됐는데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상민 동장은 "지역 내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밝고 웃으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더 많은 청소년을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장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Cheer up! 네 꿈을 응원해!' 사업으로 올해까지 102명의 학생에게 2천여 만원 장학금과 책상을 지원한 바 있다. /정은=김대환 기자